

“선택권 확대” vs “생존권 위협” 대형쇼핑몰 유치 공방

유치 광주시민회의, 대선 공약 제안·주민투표 등 추진 소상공인들 “대기업 이윤 위해 지역 상권 몰락 안돼”

광주에서 일부 시민단체가 대형 복합쇼핑몰 유치를 추진하자고 나서면서 지역 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신세계가 지난 2015년부터 추진했던 특급호텔·복합쇼핑몰 건립 사업이 중소 소상공인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이후 잠잠했던 유치 논쟁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대기업 복합쇼핑몰 유치 광주시민회의’는 29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합쇼핑몰 유치 광주시민운동 660인 선언문’을 발표했다.

시민회의는 선언문을 통해 “전남·일신방직 부지에 대기업 복합쇼핑몰을 유치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하게 광주에만 복합쇼핑몰이 없어 시민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목말라하는 시민들이 대형 복합쇼핑몰을 찾아 하남, 대전, 광명으로 원정 쇼핑을 떠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대형 쇼핑몰을 막는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며 “숙련 기술이 없어도 일할 수 있는 서비스업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다. 학생·취업준비생은 잠깐 일할 최저임금·단시간 일자리마저 하늘의 별따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기업 복합쇼핑몰 유치”를 위해 유력 대선후보 캠프에 공약 제안, 민원 제기, 주민투표 추진 등의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주시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해 대기업 복합쇼핑몰 유치를 위한 적극 행정에 나서달라”며 “일부 시민단체와 지식인, 정당은 기업이 투자할 때마다 반대하며 광주 발전을 가로막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장상인연합회·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등 지역 소상공인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 단체들도 이날 시의회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

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광주 지역 자영업자는 예외 없이 매출 하락과 폐업 위기를 간신히 견디고 있다”며 “예전처럼 일부 시민의 소비성향이나 편의성만을 부각한 채 대기업 복합쇼핑몰 유치 이후 벌어질 광주 상권의 몰락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면 유치 주장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고 역설했다.

또 “광주의 중소상인들은 ‘복합쇼핑몰 입점반대 대책위’를 꾸려 오랫동안 힘겹게 싸워왔다. 유통 대기업의 이윤을 위해 시민 일자리와 생존권을 희생해야 한다는 주장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자영업자를 위한 공론화는 대기업 복합쇼핑몰 입점이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상인 생존대책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단체들은 중소상인을 괴롭히는 복합쇼핑몰의 공론화 시도를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지난 2015년 광주신세계는 광주시와 ‘지역

친화형 랜드마크 복합시설’ 개발 투자협약을 맺고, 총 사업비 4900억 원을 들여 현 백화점 부지 일대 21만3500㎡에 특급호텔·복합쇼핑몰을 짓는 계획을 추진했다.

그러나 주변 상인·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에서 ‘유통 공룡 몸집 불리기’라는 반대 여론에 부딪혔고, 제7회 지방선거로 시장이 바뀌면서 동력을 잃었다. 지난해 광주시와 광주신세계 모두 추진에 회의적 의사를 보이며 최종 무산됐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얼마나 더우세요 폭염경보가 내려진 29일 오후 광주 동구의 한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자들이 시멘트 타설작업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경우, 옥외 작업 단속이나 중지지를 권고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상생 체크카드 미리 충전해야 할인 내달부터 ‘선 충전’ 방식 변경

사용액의 10%를 할인받는 광주 상생 체크카드 운영 방식이 8월부터 바뀐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체크카드를 사용하기 전 충전하지 않으면 10% 할인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기존에는 카드를 발급받고 별도 충전을 하지 않아도 연결 계좌 잔액 범위에서 최대 50만원의 10%를 환급(캐시백)받았지만, 이제는 미리 충전해야 한다.

광주 상생 카드 출시 이후 제정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 전 구매(충전)행위가 필수적으로 이뤄지도록 규정해 운영 방식을 변경했다고 광주시는 밝혔다. 할인은 보유한 상생 체크카드에 최대 50만원을 충전하면 계좌에서 45만원이 결제되는 선 충전 방식으로 이뤄지게 됐다.

광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침체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상생 카드 10%(기존 5%) 특별 할인을 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경찰 특공대 창설 지역 테러 적극 대응

전남 지역의 대테러 업무를 맡을 특공대가 창설됐다.

전남경찰청은 29일 나주시 경찰특공대 청사에서 창설식을 열고 전남지역의 대테러 업무 수행을 선언했다.

전남은 한빛원자력발전소, 무안국제공항, 여수국가산업단지 등 다수의 국가중요시설이 있으나, 기존 광주경찰특공대가 광주·전남의 광범위한 구역을 관할해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전남경찰청은 이에 따라 전남지역 전담 테러 대응을 위한 경찰특공대 신규 창설에 나서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국회 최종 승인을 얻어냈다.

전남경찰특공대는 대테러 예방 진압 활동, 요인경호, 인질 사건, 폭발물 탐색·처리 등을 주요 임무로 한다. 군 특수부대와 기존 경찰특공대 출신을 주축으로 전술팀, 폭발물 탐지팀, 폭발물 처리팀(EOD) 등 총 6개 팀으로 구성됐다.

김재규 전남경찰청장은 “도민의 요청에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는 최정예 특공대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광주서 강원도로 퍼지는 ‘민주화 성화’

5·18기록관, 내달 2일부터 춘천시청서 ‘기록을 넘어...’ 전

광주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강원도 춘천시청에서 오는 8월2일부터 9월5일까지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0주년 기념 ‘기록을 넘어 문화적 기억으로-봄날, 안부를 전하다’를 개최한다.

부산 민주공원에서 시작된 찾아가는 5·18 기록물 전시는 앞서 국립5·18민주묘지 추모관에서 4·19혁명에 맞춰 관객을 맞았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주관한 이번 전시는 온 국민과 지역적 한계를 넘어 5·18의 역사적

가치와 국가폭력의 실상을 통찰하는 기회로 마련됐다.

전시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5·18 기록물과 등재 이후 기록관에 기증된 사료 가운데 개인의 오월 일기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주체적 시선으로 써내려간 일기를 다양한 복제본과 영상콘텐츠를 활용해 1980년 오월의 의미를 복원한 것으로, 개인의 일상, 공포를 기록한 5·18 당시의 기록물을 옛 도청 모형으로 구현해 기록물의 세계사적 가치를 조명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

조선대 ‘치매예방 유산균 개발’ 업무협약 체결

조선대학교 광주치매코호트연구단이 치매예방 유산균 개발에 나선다.

광주치매코호트연구단은 26일 국내 대표적인 유산균 기업들과 공동연구를 통해 치매예방 솔루션을 개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치매코호트연구단은 ㈜오라팜과 ㈜코랩·㈜메디팁 등과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

연구단은 각종 잇몸질환으로 치매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최근 연구결과에 따라 국내 대표적인 유산균 기업과 함께 치매예방 솔루션 개발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업무협약을 맺게 된 협력기관은 국내 대표 유산균 기업들로 국내 구강유산균 전문기업인 ㈜오라팜은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한 구강 유산균을 활용한

구강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바이오 전략 컨설팅 업체인 (주)메디팁은 국내외 대표 바이오기업들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임상업무, 인허가, 보험, 사후관리 및 시장 예비조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어 치매 임상시험 수탁기업인 ㈜코랩은 건강기능식품 개발과 임상시험 인준·인허가 지원, 실증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다.

광주치매코호트연구단 이진호 단장은 “최근 국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연구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으로 치매예방 유산균을 통해 치매 예방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의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창립 40주년 고객 감사 이벤트

대상

300만원 상당(1명)
금 10돈



1등

100만원 상당(1명)
건조기



2등

50만원 상당(2명)
청소기



3등

30만원 상당(3명)
무무밥솥



4등

10만원 상당(10명)
에어프라이어



5등

5만원 상당(20명)
은누리상품권

※본 경품은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제세공과금은 본인부담이며 상기 조건은 추첨일까지 유지자에 한합니다.

경품행사기간 : 6월 21일 ~ 10월 31일

#경품추첨일 2021년 11월 10일 #경품추첨장소 대광금고 본점 3층 회의실
#경품응모권 지급 조건 ①저당이체 신규 및 변경(최소 5건 이상) ②출자금 신규 및 추가(최소 30만원)
#가입기본선들 고급 통장케이스 증정



MG대광새마을금고

본점(계림오거리) 062)222-5851

서남지점(문화전당역) 062)227-1532

지산지점(법원정문 앞) 062)222-1431